**대림 제2주일(2018년 12월 9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벌써 대림 2주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지나면 성탄절이고 연말입니다. 세상 곳곳은 이미 성탄이 온 것같은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오길 기다리면서 이번 성탄절에는 뭔가 좀 좋은 일이 없을까 하고, 특별한 기대나 꿈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기도 하구요, 또 어떤 분들은 성탄절날 아침에 혹시 특별한 선물을 받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이 성탄절을 보내고 싶은 꿈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 기간은 꿈과 희망을 갖고 뭔가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이 대림 기간에 기억해야할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밝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에 특별한 꿈이나 기대를 갖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우리 인간에게 아주 특별한 기대와 꿈을 갖는 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하느님도 우리 인간 세상에 오시기를,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신다는 거죠.

        성탄절은 사랑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느님의 참된 사랑의 고백인 겁니다. 사랑을 가득 받으면 기쁨과 행복이 넘칩니다. 성탄절이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기대와 희망이 가득한 이유는 바로 하느님의 절절한 사랑이 가득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잃어버리고, 부서진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려는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느님의 꿈은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구원이었습니다.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느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던 것이죠.

        혹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아직도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겁니다. 하느님께로 향하는 길도 없고, 우리 죄를 속죄할 길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도 없었고, 용서도 없었고, 그리고 세상에 구세주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은 보다 나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진 꿈이었습니다. 성탄을 통해서 하느님의 꿈과 인간의 꿈이 서로 만납니다. 그리고 이 꿈은 단순히 기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재로 일어난 실재 사건이 됩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그저 막연한 기대나 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용서하면서 그렇게 함께 하느님께로 향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각자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다시 한번 구세주가 곧 오신다고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은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는 하느님의 길로 ‘되돌아 감’을 뜻합니다. 하느님께로부터 등지고 있었던 우리 삶의 ‘방향을 돌려서 하느님께로 다시 향한다’는 의미가 ‘회개’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원래의 모습대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상처와 죄, 아픔 등으로 인해서 원래의 우리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원래 창조되었을때의 모습처럼 ‘하느님 모상’대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걸어 온 길을 돌이켜 보고, 길을 잘 못 들었다면 다시 방향을 바로잡아서 하느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산을 허물고, 길을 평탄하게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우리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욕심과 이기심, 고집, 교만 등으로 높이 쌓여있는 산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편견, 미움, 분노, 상처 등으로 굽어져 있는 우리 인생의 굴곡을 곧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너무 잘났고, 아는 것도 많고,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강하고, 도대체 주님이 들어오실 빈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걱정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려고 해도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광야는 침묵의 장소입니다. 고요의 장소입니다. 오늘 복음은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온갖 소음과 비리, 욕심, 이기심과 혼란으로 부터 벗어나서 고요하게 침묵하라고 합니다. 겸손하고 조용하게 침묵하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침묵과 고요의 시간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나와 내 하느님이 아주 솔질하게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사실, 우리는 침묵과 고요가 없는 시끌벅적하고 복잡한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희생과 나눔 없이, 나만 잘 지내면 된다는 이기적인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과 수고가 필요 없는 순간만을 즐기기 위한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쁘게 성탄 장식을 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캐롤 음악을 틀고, 반짝이는 불빛을 가득 밝힌다고 해서 성탄이 저절로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찾아 온 성탄의 기쁨은 또 그냥 그렇게 쉽게 사라지고 말 겁니다.

        연말이다 성탄이다, 여러가지 바쁘고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고요와침묵 속에서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자 요한의 ‘회개’의 메세지는 참으로 예리하고 절박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리고 우리 삶 안에 성탄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교만과 고집, 편견과 미움, 분노와 상처로 가득찬 마음의 산을 허물고,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그 길로 예수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회개와 치유, 그리고 용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시간입니다.

        벌써 대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그리스도가 우리 삶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닦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 아침에는 우리 마음의 온갖 상처가 다 씻기고, 용서와 회개의 마음으로 참된 성탄의 행복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탄생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삶은 참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